

아동문학가 박고경 연구

류덕제*

국문초록

박고경은 동요(동시), 동화(소년소설), 평론, 작문 등에 걸쳐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89편에 이르는 아동문학 작품을 확인하였다. 당시 다른 아동문학가들과 견주어보면 많은 양이다. 이는 박고경의 여러 필명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본명은 박순석(朴順錫)인데, ‘박고경(朴古京, 朴崙京)’, ‘목고경(木古京)’, ‘박춘극(朴春極)’, ‘각시탈’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다.

박고경은 평안남도 진남포(鎭南浦)와 평양(平壤)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하였고,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에 참여해 투옥되기도 하였다. 계급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보에 걸맞게, 박고경의 문학관은 기본적으로 계급적 현실인식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의 평론 「대중적 편집의 길로」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박고경의 작품을 드러난 양상은 계급주의 일변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표현기법 등 문학의 형식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고경의 동요(동시) 작품은 71편가량이 확인된다. 초기의 표현 위주에서 점차 계급적 현실인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모된다. 자신의 현실인식과 1930년대 제2차 방향전환론에 따른 문단 풍토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대감과 증오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던 당대 계급주의 아동문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동화 작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박고경의 문학관이 계급주의로만 치닫지 않는다는 점과,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뒤라는 시기와 관련된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에서 박고경은 적지 않은 작품량과 작품의 수준으로 결코 간과될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ryudj@dnue.ac.kr

수 없는 작가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면서도 문학적 형식을 외면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 때문이다. 그 결과 작품의 성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 박고경(朴古京, 朴苦京), 계급주의, 현실인식, 문학적 형식, 방항전환론, 동요(童歌), 동화

목차

1. 머리말	(1) 아동문학 평론과 박고경의 문학관
2. 박고경의 삶과 아동문학	(2) 동요 작품의 변모 양상
1) 박고경의 필명과 삶	(3) 동화 및 소년소설과 교훈
2) 박고경의 아동문학	3. 맺음말

1. 머리말

박고경은 1928년경부터 약 10여 년 동안 동요와 동화, 평론 등 다수의 아동문학 작품을 남겼다.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신춘현상 문예에 각각 동요와 동화가 당선되었고, 조선박람회 회가(會歌) 모집에 응해서 2등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작품 발표는 특정 매체에 치우치지 않고 당대 신문과 잡지를 두루 망라하였다.

작품의 양이나 질적 수준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연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박고경의 작품은 90편에 이르는 분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가 사용한 여러 필명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박고경의 작품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데에는 그의 여러 필명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박고경(朴古京) 외에 박고경(朴苦京), 목고경(木古京), 박춘극(朴春極), 박순석(박순석, 박순석, 朴順錫, 朴珣石), 각씨탈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들의 행보는 소년운동과 문학 활동이 분리되지 않았다. 박고경도 마찬가지다. 진남포(鎭南浦)와 평양(平壤)을 중심으로 소년운동과 청년운동을 하였다. 1930년대에는 조봉암(曹奉岩) 등과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문학은 『신소년』과 『별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계급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문학적 형식은 실종되다시피 하고 내용을 우선시하는 데 치중하기 일쑤였다. 박고경의 사회운동을 두고 보면 그의 작품도 당연히 계급적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당대 아동문단의 풍토 속에서도 드물게 아동문학의 형식적 미학을 고민한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적 언어를 찾고 문학적 표현과 정돈된 문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글은 한국 아동문학 초기에 활동한 아동문학가 박고경의 삶과 아동문학을 살펴보고 그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박고경의 삶과 아동문학

1) 박고경의 필명과 삶

박고경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남한과 북한의 문학 관련 사전에도 이렇다 할 정보가 없다. 지금까지 아동문학가로서 독립된 연구 대상이 된 적도 없다. 생물연도조차 밝혀진 적이 없고 무슨 일을 하였는

지도 알려진 바 없다. 한마디로 말해 작가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박고경의 신원(身元)에 대해 처음 언급한 연구자는 이재철(李在徹)이다. 『한국현대아동문학사』에서 “朴世永(星河, 古京, 魯一, 尙愚)”라 하여 박고경이 곧 박세영과 동일인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최명표가 박세영과 박고경이 다른 사람임을 밝혔고, 류덕제도 다시 확인하였다.²

박고경은 일제강점기 다른 작가들처럼 여러 필명을 사용하였다. 필명을 확인해야 박고경의 작품이 무엇인지 전체 작품의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박고경은 ‘朴古京’과 ‘朴苦京’처럼 한자를 달리하여 작품을 발표하였고, ‘木古京’이란 이름도 자주 사용했다. 이 외에도 박순석(박순석, 박순석, 朴順錫, 朴珣石)과 박춘극(朴春極), 그리고 ‘각시탈’이란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① 二等 鎭南浦 碑石里 一六六 朴順錫³

② 入選童謠

一等 「동리의원」 大邱 京町 一丁目 二 金貴環

二等 「편지」 鎭南浦 碑石里 一六六 朴古京 (하락)⁴

③ 鎭南浦青年同盟에서는 去 二十二日 午後 八時에 當地 碑石 엽윗青年會館 內에서 第二回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西鮮民衆運動者大會 開催의 件을 비롯하여 十餘件을 討議 決定한 後 同 十一時에 閉會하였다는데 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鎭南浦】

1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121면.

2 최명표의 『한국근대소년문예운동사』(도서출판 경진, 2012, 286~290면)와 류덕제의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의 필명 고찰」(90면)에 소상히 밝혀져 있다.

3 「嚴選 中이든 朝博宣傳歌 入賞者 決定 發表-십이일 방송국에서 시연 방송」, 『매일신보』, 1929.7.11.

4 「入選童謠」, 『동아일보』, 1930.1.1.

◇ 決議事項

一. 西鮮民衆運動者大會 開催의 件

그 準備委員으로 金貞玉, 李鍾勳, 朴古京, 金明子, 林昌旭⁵

- ④ (전략) 이제 그 내용에 관하여 탐문한 바에 의하면 김찬은 재작년 평양(平壤)과 쏘는 인천(仁川)에 배부된 「로동데이」 격문사건과 조선공산당재건운동(朝鮮共產黨再建運動)에도 관련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김찬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로 약二개월 전에 철원(鐵原)에서 체포되어 온 최인준(崔仁俊) 진남포(鎭南浦)에서 체포되어 온 박춘극(朴春極) 김명우(金明友) 등과 김찬과 함께 월경 입국한 후 그동안 경성에 있다가 역시 평북경찰부에 잡히어 온 김형갑(金亨甲)과 보성고보(普成高普) 교유 문석준(文錫俊) 등에 관한 취조도 一단락을 보았으므로 문석준을 제외하고는 (금명간 석방될 듯) 모다 함께 송국을 볼 듯하다고 하는 바 (하략)⁶
- ⑤ 第九, 被告人 朴春極은 鎭南浦府 所在 私立 得信學校 在學 當時부터 雜誌 『星의 國』을 講讀하여 昭和 四年 八月頃 鎭南浦青年同盟에 加入하자 그 圖書部 備付의 「青年에게 呼訴함」 「資本主義의 機構」 等이라고 題한 ‘팜플렛’을 耽讀하여 드디어 共產主義에 共鳴하기에 이르렀는 바 (하략)⁷
- ⑥ 소화 六年 四월에 로동자로 가장하고 공산당재건 진남포 오루구(鎭南浦 오루구)로 동지에 잠입하여 동지 개림양복점(鷄林洋服店) 직공으로 자리를 잡고 드러가 은밀이 동지 로동운동과 및 로동자의 향배를 조사하는 동시에 운동을 가치 할 인물을 물색하든 중 진남포청년동맹 집행위원장 김화옥(金花玉)(二七)과 교유하게 되었다. (중략) 一九三一년 九月 ‘모스

5 「西朝鮮…… 民衆運動者 大會—鎭南浦 靑盟에서 準備」, 『중외일보』, 1930.7.25.

6 「大金 携帶하고 潛入한 金燦 等 不日送局—概文事件, 赤色勞組에 關聯, 四名은 昨日에 釋放」, 『동아일보』, 1933.1.21.

7 「單一 共產黨 再建事件 豫審 決定書 全文 (八)」, 『동아일보』, 1933.6.21.

크'에서 개최되었던 제 五회 전세계적색로동조합대회에서 결정된 '조선
○○적 로동조합운동에 관한 결의서=소위 九월제제'에 의하여 적색로동
운동에 라다가 될 인물을 양성할 목적으로 동지 공립상공학교 四, 五학
년 학생 중심의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였다. 送局者 (중략) 本籍 平壤
新陽里 一六八 無職 朴順錫(二三)(一名 朴春極) 鎭南浦 碑石里 勞働 金良
順(二四)(一名 金明宇) (전과 박순석, 김량순 二명은 해외공산당재건사건
으로 방금 신의주지방법원 예심 중에 있다).⁸

⑦ 本籍 平南 平壤府 新陽里 一六八 住居 同道府 下水口里 二三 無職 朴順
錫 事 朴春極(二三)⁹

⑧ ◀本籍 平南 平壤府 新陽里 一六八 住居 同附 水口里 二三 無職 朴春極
(二三) 一名 朴順錫¹⁰

⑨ 【平壤】 五月 격문사건 이래 불면불휴로 활동하고 있던 평양서에서는 최
근 어떠한 유력한 단서를 잡은 모양으로 얼마 전 신의주형무소를 나온
조봉암(曹奉岩) 사건의 관계자(하수구리 거주 박고경(朴古京)一名 春極)
외 수명의 청년을 검거하여 늦코 엄중 취조를 하는 一방 형사대는 이상
히 긴장하여 각 방면으로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사건의 진전이 자
못 주목된다.¹¹

⑩ 【平壤】 평양서 고등계에서 얼마 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박고경(朴古京)
이라는 조봉암(曹奉岩)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근출옥한 청년을 검거하였
다 함은 그보한 바이어니와 동 서에서는 계속하여 김원순(金元淳)(一八)

8 「第一着으로 學生 赤化 努力-진남포 상공학교 생도 중심 赤色 讀書會를 組織」, 『동아일보』, 1933.3.8.

9 「單一 共產黨再建事件-豫審決定書 全文(-)」, 『동아일보』, 1933.6.3.

10 「朝鮮共產黨 再建事件, 曹奉岩 等 公判 開廷-今日 午前 十一時, 新義州法院서, 廷 内外에 警戒 三嚴」
『동아일보』, 1933.9.26)에 기소된 16명의 신원을 밝힌 것 중 '朴春極' 항.

11 「平壤署 高等係-某 端緒를 잡고져 各 방면으로 맹활동하야 青年 數名를 檢擧」, 『조선중앙일보』,
1934.7.23.

신철(申哲=一名 梁佳彬) 등 문학청년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수년 전 김찬(金燦=現在 服役)의 지도하에 모종의 문화적 크름을 비밀히 조직하였던 것이 지금에 폭로된 것이라고 한다. (이상 밑줄 필자)

①의 박순석의 주소와 ②의 박고경의 주소가 동일하다. ⑦의 ‘朴順錫事 朴春極(二三)’과, ⑨의 “박고경(朴古京—一名 春極)”에서 박고경이 박춘극임이 확인된다. ‘朴順錫事 朴春極’의 ‘事’는 일본어 ‘こと’로 두 체언 사이에 끼워서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곧’ 또는 ‘즉’의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박순석 곧 박춘극’이란 뜻으로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나타낸다. ⑥에도 “朴順錫(二三)(一名 朴春極) 鎭南浦 碑石里”라 하여 확인이 된다. ⑥, ⑦, ⑧, ⑨를 종합하면 ‘박고경=박춘극=박순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朴珣石’이란 이름이 있다. 동요 「오퍼 보는 책」(『별나라』 통권42호, 1930년 7월호, 61면)의 지은이는 ‘벗춤營 朴珣石’이다. ‘벗춤營’과 ‘벗춤社’는 동일한 소년문예단체이고 남포(鎭南浦)에 소재하였다. 「종달새」(『별나라』, 1929년 5월호)는 ‘벗춤社 鄭明杰’의 작품인데, 「어린 농부꾼」(『별나라』 통권42호, 1930년 7월호)은 ‘벗춤營 鄭明杰’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두 단체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벗춤營 鄭宇烽’의 「떠나는 길!!」(『동아일보』, 1931.1.13)의 말미에 “一九三〇. 一二. 一三—北國 가신 朴古京 동무에게—”라 한 것을 보면 박고경이 같은 ‘벗춤營’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요 「첫눈」과 작문 「바다스기에서」의 지은이는 ‘벗춤社 朴春極’이고, 동요 「자장가」의 지은이는 ‘벗춤社 朴順錫’이며, 동요 「선물로 바든 입술 짙간 각시」의 지은이는 ‘벗춤社 朴古京’이고, 잡지 『어린이』의 ‘소년토론’¹²에 ‘벗춤

12 벗춤社 朴順錫, 「少年討論, 발 便」, 『어린이』 제8권 제4호, 1930년 4-5월 합호, 69면.

社 朴順錫이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박고경도 남포의 소년문예단체인 ‘붓춤社(붓춤營)’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朴珣石’은 ‘朴順錫’을 한자만 달리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고경(朴古京), 박순석(朴順錫), 박춘극(朴春極) 가운데 ‘朴順錫’이 본명으로 보인다. ‘朴順錫 事 朴春極’과 ‘박고경(朴古京—一名 春極)’이 뒤섞여 있기는 하나, 법원 판결문과 같은 일제 당국의 공식 문서에 적어 놓은 ‘朴順錫 事 朴春極’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씨탈’도 박고경의 필명 중 하나다. 「바다가에서」, 「밤비」, 「발자욱」, 「민충이」, 「파스되든 날」, 「기다림」 등이 ‘각씨탈’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동요다. 「바다가에서」(南浦 각씨탈; 『중외일보』, 1928.6.25)는 「바다가」(南浦 朴春極; 『조선일보』, 1928.9.21)와 표기상 약간 다를 뿐 완전 동일한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아동문단에는 같은 작품을 중복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 ‘각씨탈’과 ‘박춘극’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뒤에 발표한 ‘박춘극’이 표절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아래 작품을 보면 ‘각씨탈’과 ‘박순석’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한자와 두자석자 색이며넉곤

내일흙 한번두번 비워워보고

가슴은 꼭누루구 내려다보다

씩머즌 그곳에는 박 순 석 (「파스되든 날」의 2연) (밑줄 필자)

시험을 치고 통과(패스=pass)되었는지 이름을 찾는 장면이다. 그곳에서 ‘박순석’이란 이름을 찾았다. 지은이 ‘각씨탈’이 시의 본문에 자신의 이름 ‘박순석’을 밝혀 놓은 것이다. ‘각씨탈’의 고향이 ‘남포(南浦)’라는 것도 박

순석과 같아 또 하나의 입증이 된다. 따라서 ‘각씨탈=박춘극=박순석’이 확인되었다.

박고경은 1911년에 태어나 1937년 3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⑥ ⑦에 박고경의 나이를 23세로 밝혔는데 이때가 1933년이라 세는나이로 계산하면 1911년생이 된다. 사망일자도 분명하다. “朴苦京 先生은 지난 三月 十日에 別世하셨습니다”¹³라 한 것에서 확인된다.

박고경의 본적과 주소는 ⑦과 ⑧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주소는 평안남도 진남포 비석리(鎭南浦 碑石里) 166¹⁴이 있다.

第九, 被告人 朴春極은 鎭南浦府 所在 私立 得信學校 在學 當時부터 雜誌 『星의 國』을 講讀하여 昭和 四年 八月頃 鎭南浦青年同盟에 加入하자 그 圖書部 備付의 「青年에게 呼訴함」 「資本主義의 機構」等이라고 題한 ‘팜프레트’를 耽讀하여 드디어 共產主義에 共鳴하기에 이르렀는 바 (一) 昭和 六年 六月頃 같은 被告人 金燦과 함께 鎭南浦 三和公園 內에 前記 第八回 被告人 犯罪事實 (一) 揭記와 같이 協議를 마치고 (二) 同年 七月頃 同府 所在 같은 被告人 金良順 肩書 居宅에서 同人 及 金花玉(一名 金貞玉)과 會合하여 朝鮮○○○○○ (공산주의 사회)를 建設하기 爲하야는 먼저 勞働者가 團結하야 이에 當하여야 한다 하야 勞働者의 團體 卽 勞働組合을 結成하기를 企劃하고 勞働階級에서 同志 獲得을 爲하야 被告人은 同 府內 埠頭를 他 兩名은 街頭 또는 各 工場을 各其 擔當하야 同 主義를 宣傳할 것을 協議하다. (三) 다시 同年 十月頃 同府에서 平壤 城內에 移住하였는 바 昭和 七年 四月 三十日 夜 같은 被告人 金燦으로부터 前記 「붉은 五,一節」及 「日本을 反對하라」고 題한 ‘빼라’는 모두 頒布

13 「쏟쏟이新聞, 비담기探險隊」, 『동화』, 1937년 4월호, 26면.

14 「會歌」(鎭南浦 碑石里 一六六 朴順錫; 『매일신보』, 1929.7.11)에서 확인된다.

의 目的으로 當局의 許可 없이 印刷된 것으로 前示 第四 같은 被告人 元鳳洙의 犯罪事實 (一)(二) 揭記와 같은 것임을 알면서 前記 第八 같은 被告人 金燦의 犯罪事實 (八) 揭記와 같이 頒布하여 朝鮮의 ○○及 朝鮮에 ○○○○(사유재산) 制度를 ○○(철폐)하고 ○○○○○○(공산주의 사회) 實現의 目的 實行을 煽動한 것이다.¹⁵ (밀줄 및 복자 복원 필자)

위의 예심종결결정서와 당시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박고경의 활동을 재구성해 보자. 박고경의 본적과 주거는 평양(平壤)이지만 초등학교는 진남포(鎭南浦) 소재 사립 득신학교를 다녔고, 이후 평양의 송실중학교를 다닌 것으로 확인된다.¹⁶ 득신학교 재학 중에 아동문학 잡지 『별나라』(위 인용문에는 『星의 國』)를 구독하였고, 1929년 8월경 <진남포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여러 팜플렛을 탐독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맹 가입 시기는 다소 혼선이 있는 듯하다. 1928년 6월 23일 <진남포청년동맹> 진남포지부 설립대회가 엽윗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을 때 ‘소년부장 박춘극’의 직함에서 보듯이 이미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엽윗청년회(懿法靑年會)’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개신교 청년단체이다. 1897년 미국 감리회(監理會) 한국선교연회의 결정으로 창립되어 한국 청년운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0년 6월 11일 <진남포청년동맹> 집행위원회에서 ‘여자 및 소년부장(女子及少年部長)’으로 선임되었다.¹⁸ 1930년 7월 22일 <진남포청년동

15 「單一共產黨再建事件 豫審決定書 全文(八)」, 『동아일보』, 1933.6.21.

16 「나는, 「달과 나」의 지은이는 「平壤 崇實 朴順錫」, 「村婦人」은 「平壤 崇實 朴春極」이다. 이로 보아 이 시기에 평양 송실중학교에 재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 「南浦靑年同盟－南浦支部 設立」, 『동아일보』, 1928.6.26.

18 「鎭南浦靑盟 執行委員會」, 『중의일보』, 1930.6.14.

맹>은 비석(碑石)엿칭년회관 내에서 제2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선(西鮮)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는 건을 비롯한 안건을 토의하였는데 이때 박고경은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¹⁹ 1930년 7월경에는 <조선청년총동맹> 평안남도연맹 설립대회에서 임원선거가 있었는데 집행위원 후보에 ‘이석(李碩), 박고경(朴古京), 김형주(金亨柱)’가 선출되었다.²⁰ 1930년 6월경부터 진남포에서 김찬(金燦), 김양순(金良順), 김정옥(金貞玉) 등과 함께 공산주의 활동을 하였으며, 위 ‘결정서’에 의하면, 1931년 10월경 평양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30년 하반기경에 만주(滿洲)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눈」(『동아일보』, 1930.12.6)의 말미에 “北國에서”라 한 것과, 정우봉(鄭宇烽)의 「떠나는 길」(『동아일보』, 1931.1.13)의 말미에 “一九三〇.一二.一三 — 北國 가신 朴古京 동무에게”라 한 데서 알 수 있다. ‘북국’은 “가면가면 이길이 어대인가요/만주땅이 여기서 떨리입니까//칼바람에 눈보라 날뛰인다쥬/싱글싱글 되놈의 나라 이라쥬//”(「떠나는 길」)에서 보듯이 만주(滿洲)다. ‘결정서’에서 박고경이 1931년 10월경 평양으로 이주했다고 하므로 만주(滿洲)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 11월경 김찬(金燦) 등과 함께 한 격문사건,²¹ 1933년 1월 30일 ‘조선공산당재건사건’으로 김찬 등 14명 중 4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될 때²² 박고경은 김찬(金燦), 안종각(安鍾玉), 김양순(金良順)과 함께 구

19 「西朝鮮…… 民衆運動者 大會 嶺南浦 靑盟에서 準備」, 『중외일보』, 1930.7.25.

20 「朝鮮靑總 平南道聯 設立大會— 討議事項은 禁止로 一貫, 會況만은 勝況을 일우워」, 『중외일보』, 1930.7.17.

21 「大金携帶하고 潛入한 金燦 等 不日送局— 檄文事件, 赤色勞組에 關聯, 四名은 昨日에 釋放」, 『동아일보』, 1933.1.21.

22 「檢舉取調 五個月만에 金燦 等 十四名 送局— 平北警察部에서 新義州法院에 朝鮮共產黨再建事件」, 『동아일보』, 1933.2.1.

속되었다. 이 사건의 주도적 인물은 김찬이다.²³ 1933년 3월경 조봉암(曹奉岩) 사건과 김찬(金燦)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는데 이때 박고경도 포함되었다. 1933년 9월 25일부터 「조선공산당 재건사건 조봉암 등 공판 개정」이 있었고,²⁴ 1933년 12월 27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조선단일공산당사건 판결이 있었는데, 김찬은 징역 1년 반, 박춘극(박고경)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²⁵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창건되었다가 11월 22일 신의주사건(新義州事件)으로 곧바로 꺾멸되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던 조봉암, 김찬 등이 1932년경에 체포되었는데 이것이 위에서 말한 사건이다. 조봉암은 1933년 12월 5일 신의주로 압송되었고 김찬 사건 관련자들과 병합하여 1933년 12월 27일 선고가 있었는데 김찬과 박고경은 앞에서 말한 대로 징역 1년씩이었으나, 조봉암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²⁶

박고경은 1934년 문화클럽 활동으로 평양에서 다시 검거되었다. 이 또한 이전에 김찬과 함께 활동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다.

【平壤】 평양서 고등계에서 얼마 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박고경(朴古京)이라는 조봉암(曹奉岩) 사건으로 복역하다 기근출옥한 청년을 검거하였다 함은 괴보한 바이어니와 동 서에서는 계속하여 김원순(金元淳)(一八) 신철(申哲 = 一名 梁佳彬) 등 문학청년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수년 전 김찬(金燦=現在 服役)의 지도하에 모종의 문화적 크름을 비밀히 조직하였던 것이 지금에 폭로된 것

23 「資金を 携帶 滯在中 被逮-수개월 동안 류치한 뒤에야 金燦임이 判明 活動」, 『동아일보』, 1933.2.1.

24 「朝鮮共產黨 再建事件 曹奉岩 等 公判 開廷-今日 午前 十一時 新義州法院서, 廷内外에 警戒 森嚴」, 『동아일보』, 1933.9.26.

25 「朝鮮單一共黨 判決」, 『동아일보』, 1933.12.28.

26 문한동, 「조봉암 연구-정치활동과 노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2.8. 31~36면.

이라고 한다.²⁷ (밑줄 필자)

조봉암 사건 곧 조선공산당재건사건으로 1933년 12월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가출옥한 상태에서 1934년 7월경 다시 검거가 된 것이다.

박고경이 참여한 문학단체는 <붓춤사>(붓춤營)이다. 1928년 중반경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결성하였고, 같이 활동한 소년문사들은 정명결(鄭明杰), 별꽃, 전용재(田龍在), 정우봉(鄭宇烽), 김상묵(金尙默) 등이다. 「종달새」(붓춤社 鄭明杰; 『별나라』, 1929년 5월호, 60면), 「옴바 보는 책」(붓춤營 朴珣石), 「어린 농부순」(붓춤營 鄭明杰)(이상 『별나라』, 1930년 7월호, 61면)²⁸ 「어린 歌壇」락엽의 편지」(南浦붓춤社 別꽃; 『아이생활』, 1928년 11월호), 「나의 집」(南浦붓춤社 田龍在; 『동아일보』, 1930.8.22), 소년 토론 「발 便」(붓춤사 朴順錫; 『어린이』, 1930년 45월 합호, 69면), 「떠나는 길!!」(붓춤營 鄭宇烽; 『동아일보』, 1931.1.13), 「가가 책」(붓춤營 金尙默; 『동아일보』, 1931.2.24) 등의 작품을 통해서 동인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붓춤사> 외에도 1927년경부터 평양에서 활동하다가 1931년에 창립한 <새글회>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²⁹ 「平壤새글會 創作特別欄 童

27 「秘密裡에 組織한 文化 ‘크립’ 綻露로 平壤署 文學青年 等 檢舉」, 『조선중앙일보』, 1934.7.30.

28 『별나라』(동권42호, 1930년 7월호, 60~61면)에는 ‘童謠特輯’으로 ‘少年文藝團體作品’이 수록되어 있다.

29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평양 <새글회>는 1931년 2월에 공식 창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글회>란 이름을 달고 작품을 발표한 경우는 1927년경부터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확인된다. “◀三四年 前부터 問題로 내려오든 平壤새글會는 이제야 비로서 創立되어 完全히 事務를 處理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략) (平壤府 上水口里 二〇七番地 새글會 庶務部)”(『동무소식』, 『매일신보』, 1931.2.19), “음력 정초를 기회하여 평양에 문학에 뜻 두는 소년소녀들의 새로운 문예단체 <평양새글회>가 창립되었는데 현저 회원은 八명이오 (중략) 會長 姜順謙, 總務 高三悅, 書記 姜奉周, 會計 李信實, 圖書部長 姜順謙, 出版部長 高三悅, 社交部長 崔順愛, 庶務部長 南在晟, 演藝部長 七夕星, 指導者 白學九 先生, 顧問 韓晶東, 南宮浪”(「正初, 平壤에 새글會 創立一少年少女文藝團體」, 『동아일보』, 1931.2.22)

詩童謠 十篇(『少年界』, 1928년 4월호, 13~14면)에, 「참새」(고삼열), 「황혼」(鮮于天福), 「가을님」(高義淳), 「잠꼬대」(姜順謙), 「반작별」(大同郡 朴鳳八) 등과 함께 「아버지」(朴順錫)가 실려 있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아동문학 잡지나 신문에는 소년문예단체 명의의 작품을 5편에서 10편 정도 모아 게재하기도 하였는데, 평양의 <새글회>가 알려지자 『소년계』에서 특집란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창립한 <동요시인사>(童謠詩人社)에도 관여했다.

創刊號부터 그 宣言대로 同人을 비롯하여 一般 投稿家들의 作品을 誌面이 許하는 限까지는 安代판단의으로 실리는 바에도 梁柱東, 金岸曙, 黃錫禹, 朴古京, 李揆天, 田春湖, 蔡松, 韓泰泉 外 數氏의 指導的인 論文도 號마다 실었다.³⁰
(밑줄 필자)

동요시인사는 1931년 겨울에 조직되었고 발기자는 김대봉(金大鳳), 김조규(金朝奎), 남궁랑(南宮琅), 황순원(黃順元) 등이고, 양춘석(梁春錫)이 뒤이어 입사하여 편집책임을 맡았다. 박고경은 직접 동인활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명작가의 등용문이 되기 위해 앵데팡당(Indépendants) 곧 ‘투고 작품을 심사 없이 수록’하는 것을 선언한 터이지만, ‘지도적인 논문’을 수록하여 질적 저하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여기에 박고경이 포함되어 있다. 같이 문화클럽을 했던 양가빈의 말이므로 박고경에 대한 당대의 평가로 볼 수 있다.

30 梁佳彬, 『『童謠詩人』回顧와 그 批判(一)』, 『조선중앙일보』, 1933.10.30.

2) 박고경의 아동문학

박고경은 1928년 초반부터 동요(동시) 작품을 발표하면서 아동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박고경의 작품은 89편가량이 된다. 동요(동시)가 가장 많은데 71편가량이다. 작품의 제목만 확인된 것과 선외가작을 포함하면 77편이 된다. 평론이 1편, 동화(소년소설)가 6편, 나머지 5편은 작문을 포함한 잡문들이다. 잡지의 독자란에 투고한 것들은 제외한 것이다. 산일된 신문과 잡지를 감안하면 전체 작품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朴古京’으로 27편, ‘木古京’으로 18편, ‘朴苦京’으로 동화 및 소년소설 5편, ‘朴順錫(朴珣石, 박순석, 박순석)’으로 21편, ‘朴春極’으로 12편, ‘각씨탈’로 6편을 발표하였다.

박고경은 기성문인의 ‘선평(選評)’이나 신문과 잡지의 현상공모에 여러 차례 응모하여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조선일보』의 ‘학생문예’란은 김동환(金東煥)이, 『소년조선』에는 적라산인(赤羅山人=金永鎭)과 이장희(李章熙)가 동요에, 최독견(崔獨鵝)이 산문(작문)에 선평을 하고 있었다. 『소년조선』에는 여러 편의 동요와 작문이 당선되거나 선외가작으로 뽑힌 바 있다. 신춘현상과 이런저런 공모에도 여러 차례 응했다. 1929년 『동아일보』의 신춘현상에 응모하여 「달밤」이 선외가작으로 뽑혔다. 이해에 동요 부문에는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익히 알려진 이름으로는 진남포의 정명걸(鄭明杰), 개성(開城)의 김영일(金永一), 마산(馬山)의 이원수(李元壽), 경성(京城)의 박을송(朴乙松) 등이 있다. 같은 해 7월에 <경성협찬회>(京城協贊會)가 조선박람회 조선문 선전가를 모집하였는데 ‘회가(會歌)’ 부문에 2등으로 당선되었다. 1등은 윤석중(尹石重)이었다. 1930년 『동아일보』 신춘현상 동요 부문에서 「편지」가 2등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윤

복진(尹福鎭)이 변성명한 김귀환(金貴環)의 「동리의원」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 이해에는 양정혁(楊汀赫), 김영수(金永壽), 김대봉(金大鳳), 목일신(睦一信), 이성홍(李聖洪) 등 뒷날 이름이 알려진 이가 여럿 당선 또는 선외가작에 이름을 올렸다. 1931년 『조선일보』의 ‘문자보급가’와 ‘한글기념가’ 공모에도 응모해 선외가작으로 당선되었다. 마지막 응모는 1936년 『조선중앙일보』 신춘현상 문예에 동화 「계산이」가 당선된 것이었다.

오늘날 문인의 등단은 신문의 신춘문예 당선이나 잡지의 추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오늘날과 많이 달랐다. 박고경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여 기성문인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신춘 현상공모에 응모하고 있다. 따라서 박고경의 등단작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보면, 18세 때인 평양 숭실학교 재학생 시절의 「나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고경의 작품연보를 작성해 보면, 1932년 말경까지 작품을 발표하다가 1933년을 건너뛰고 1934년이 되어서야 발표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공산당재건 사건으로 1932년 11월에 체포되어 1933년 12월에 판결이 끝이 난 것과 관련된다. 수감 중이던 때를 제외하면 1928년 2월경부터 사망하기 반년 정도 전인 1936년 9월경까지 꾸준하게 작품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작가	작품	갈래	발표지	발표일자
平壤崇實中學 朴順錫	나는	시	조선일보	1928.2.11
平壤崇實中學 朴順錫	달과 나	시	조선일보	1928.2.11
平壤崇實 朴春極	村婦人	시	조선일보	1928.3.2

작가	작품	갈래	발표지	발표일자
朴順錫	아버지	동시	소년계	1928.4
南浦 朴春極	손짓	동요	중외일보	1928.6.12
南浦 朴春極	꿈	동요	중외일보	1928.6.14
南浦 各씨탈	바다가에서	동요	중외일보	1928.6.25
南浦 各씨탈	밤비	동요	동아일보	1928.8.1
南浦 朴春極	옴바를 차즐 쎄	수필	동아일보	1928.8.17
各씨탈	발자욱	동요	중외일보	1928.8.18
各씨탈	민층이	동요	동아일보	1928.8.25
南浦 朴春極	바다가	동요	조선일보	1928.9.21
南浦 朴春極	어린 농부	동요	조선일보	1928.9.25
南浦 朴春極	선외가작(작품 불수록)	동요	소년조선	1928.9
南浦 朴春極	해사비	작문	소년조선	1928.9
南浦 各씨탈	기다림	童詩	소년조선	1928.9
朴春極	(選外兒童作品 其八)달밤	동요	동아일보	1929.1.28
붓춤社 朴春極	첫눈	동요	소년조선	1929.1
붓춤社 朴春極	바다사기에서	작문	소년조선	1929.1
붓춤社 朴春極	선외가작(작품 불수록)	동요	소년조선	1929.1
各씨탈	선외가작(작품 불수록)	동요	소년조선	1929.1
박순석	새봄	동요	중외일보	1929.3.16
朴순석	退院	동요	중외일보	1929.3.21
朴順錫	첫 비	동요	중외일보	1929.3.21
朴順錫	암마	동요	중외일보	1929.3.21
各씨탈	파스 되든 날	동요	중외일보	1929.3.21
박순석	비답이	동요	중외일보	1929.4.20
朴順錫	‘날’노래	동요	소년조선	1929.4.5월합호
朴順錫	봄이로소이다	작문	소년조선	1929.4.5월합호
各씨탈	선외가작(작품 불수록)	동요	소년조선	1929.4.5월합호
朴順錫	會歌	회가	매일신보	1929.7.11
朴順錫	눈물	동요	조선일보	1929.10.3
南浦 朴順錫	저녁재	동요	조선일보	1929.10.13

작가	작품	갈래	발표지	발표일자
南浦 朴順錫	머리 베인 눈(畵)	동요	조선일보	1929.11.2
朴順錫	기다리는 어머니	동요	조선일보	1929.12.7
붓춤社 朴順錫	자장가	동요	조선일보	1929.12.10
朴順錫	工場 굴둑	민요	조선일보	1929.12.11
朴古京	편지(二等)	동요	동아일보	1930.1.1
朴古京	밤Yet	童謠	중외일보	1930.1.25
朴古京	글 모르는 어머니	동요	조선일보	1930.1.30
朴古京	양말을 짓는 누나의 노래	동요	조선일보	1930.2.1
南浦 朴順錫	나무닙	동요	동아일보	1930.2.2
南浦 朴順錫	工場 굴둑	동요	동아일보	1930.2.2
朴古京	눈 꽃-동무 水京에게	동요	중외일보	1930.2.7
朴古京	세배돈-正月初에	동요	중외일보	1930.2.7
붓춤社 朴古京	선물로 바든 입술 썰간 각시	동요	조선일보	1930.2.9
朴古京	서리	童謠	중외일보	1930.2.9
鎭南浦 朴古京	서리와 풀	동요	별나라38	1930.2.3월합호
朴古京	쓰더머리	동요	조선일보	1930.3.01
木古京	서른 꿈	동요	중외일보	1930.3.07
木古京	첫봄	동요	중외일보	1930.3.08
南浦 木古京	우리형님	동요	조선일보	1930.3.14
朴古京	煙氣	동시	중외일보	1930.3.16
朴古京	절구질	동시	중외일보	1930.3.18
朴古京	불 빛는 지계(미확인) ³¹	동요	별나라	1930.4
朴古京	밤Yet장수 여보소(간접확인) ³²	동요	소년세계 2권 4호	1930.4
木古京	속꿈작란	동시	중외일보	1930.4.5
木古京	五月	小曲	조선일보	1930.4.24
붓춤社 朴順錫	(少年討論)발 便 ³³	토론	어린이	1930.4.5월합호
木古京	봄	동요	조선일보	1930.5.8
木古京	욕심쟁이	동요	중외일보	1930.5.13
木古京	바다	小曲	조선일보	1930.5.15

작가	작품	갈래	발표지	발표일자
木古京	棧橋에서	시	조선일보	1930.6.17
木古京 (목차朴古京)	다시 살난 동생의 깃새	동요	별나라41	1930.6
붓춤營 朴珣石	옴바 보는 책	동요	별나라42	1930.7
木古京	저 쌀을 보라(미확인) ³⁴	동요	별나라43	1930.8
木古京 (목차朴古京)	허잡이만 밋다간	동요	별나라46	1930.11
木古京	눈	동요	동아일보	1930.12.6
木古京	‘느티나무’의 여름의 해낫	동요	소년세계 2권7호	1930.8-9월합호
木古京	한글 紀念歌	동요	조선일보	1931.1.6
朴古京 (목차木古京)	첫눈 오시는 거림-멧 토막-	수필	별나라47	1931.1-2월합호
木古京	배	동요	별나라50	1931.5
木古京	해바래기	동요	별나라53	1931.9
木古京	개똥불 만세	동요	신소년	1931.11
목고경	압산(略)	동요	소년세계 3권2호	1932.2
朴古京	主日날-特히 平壤 동무들에게	동요	별나라58	1932.4
朴古京	형 안령히	시	신소년	1932.7
朴古京	蹴球歌	동요	별나라60	1932.7
朴古京	暴風·暴風·저 暴風	소년시	신소년	1932.8
朴古京	大衆的 編輯의 길로!	평론	신소년	1932.8
朴古京	여름과 ○先生(작품 불수록)	동요	신소년	1932.9
朴古京	훗날 맛나자	동요	신소년	1932.10
朴古京	개아미야 나와 악수해	동요	신소년	1932.11
朴古京	자동차(미확인)	동요	신소년	1933.1
朴古京	바람아(미확인) ³⁵	동요	신소년	1933.1
朴苦京	개와 송아지(전3회)	童話	조선중앙 일보	1934.7.26~29

작가	작품	갈래	발표지	발표일자
朴古京	거짓말이 생긴 곳(전3회)	童話	조선중앙 일보	1934.9.30~ 10.4
朴古京	구름편지	동요	별나라78	1934.11
朴苦京	(當選童話一等)계산이(전2회)	童話	조선중앙 일보	1936.1.1~3
朴苦京	햇불(상,중,하)	童話	조선중앙 일보	1936.3.1~7
朴苦京	칠판 엮는 학교	童話	동화 1권3호	1936.4
朴苦京	새옷(칠판 엮는 학교 2)	소녀 소설	동화 1권7호	1936.9

붓춤營 鄭宇烽	떠나는 길!!	동요	동아일보	1931.1.13
趙灘鄉	李盛珠 氏 童謠 「밤옛장수 여 보소」는 朴古京氏의 作品	평론	동아일보	1930.11.22~23

박고경의 아동문학관을 살펴볼 수 있는 평론을 시작으로, 동요(동시), 동화(소년소설) 순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1 「불 빛는 지계」는 김병호(金炳昊)의 「四月의 少年誌 童謠(-)」(『조선일보』, 1930.4.23)를 통해 확인하였다.
- 32 박고경(朴古京)의 「밤옛장수 여보소」는 조탄향(趙灘鄉)의 「(文壇探照燈)李盛珠 氏 童謠 ‘밤옛장수 여보소」는 朴古京 氏의 作品(-)」(『동아일보』, 1930.11.22)을 통해 확인하였다.
- 33 「少年討論」 제6회 주제는 「사람이 生活하는데 손이 나흔가? 발이 나흔가?」였고, 참가자는 <손 便>에 태천(泰川) 박응삼(朴應三), 순천(順川) 이형순(李滢淳), 고양(高陽) 서운만(徐允萬), <발 便>에 후창(厚昌) 채규철(蔡奎哲), 영변(寧邊) 백지섭(白智燮), 붓춤社 박순석(朴順錫)이 참여하였다.
- 34 김병호(金炳昊)의 「最近 童謠 評(二)」(『중외일보』, 1930.9.27)에 “○ 木古京 君의 「저울을 보라」는 自己 撰은 淸 美妙한 것을 發現하러 한 것 가트나 아모것도 所得하지 못하였다. 이 作者의 新聞紙上等에 亂作 亂發表하는 것들도 보잘것없다.”라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35 이 「자동차」와 「바람아」는 『신소년』(1933년 1월호)이 산일(散逸)되어 작품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홍구(洪九)의 「아동문예시평」(『신소년』, 1933년 3월호, 25면)에 이 두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1) 아동문학 평론과 박고경의 문학관

박고경의 문학평론은 「대중적 편집의 길로!—6월호를 읽고」가 유일하다. 문학평론은 필자의 문학관이 직접 표출된다는 점에서 박고경의 생각을 확인하는 데 맞춤하다.

◁이번 호 내용도 약하지 안타고 우리는 밋는다. 더 잘하고 더 힘 잇게 하려 는 마음이 우리에게 업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엇절 수 업는 사정이니 알아다오. (編輯室에서) (『신소년』, 1932년 6월호, 56면)

1932년 『신소년』 6월호의 「편집후기」에 있는 말이다. 박고경은 「대중적 편집의 길로」에서 이 말을 인용한 후에 “가장 弱한 『新少年』은 아닐런지 모르나 그것은 決코 強한 것은 아니”(30면)라 하였다. 박고경은 『신소년』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문예에만 편중하지 말고 과학에 대한 내용을 보강할 것, 둘째 레포 난을 충실히 하여 『신소년』 독자인 근로소년과 호흡을 같이할 것, 셋째는 “『プロレタリア文學』을 읽을 때 「職場의 歌」에서 더 깊은 感銘을 느낀 經驗”을 언급하면서, 기성보다 신진들의 작품이 감명을 준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다음 『신소년』 수록 작품을 평가하였다. 먼저 ‘6월 동요란’의 작품이나 송완순(宋完淳)의 「방울」과 간도 교근(間島 教楸)의 「우시는 어머님」과 같은 작품에 대해 “푸로레타리아 作家를 꿈꾸는 文學少年의 作亂”(31면)이라며 실망을 표시하였다.

아기가 갖고노는/방울이 딸랑딸랑//방울갓인 아기의/불알도 딸랑딸랑//방울은 맑고고흔/쇠소리를 내건만//아기의 불알은/웨소리가 앓나나// (宋完淳, 「방울」,

『신소년』, 1932년 6월호, 8면)

작년에 씨심듯 우리의밭이/올봄엔 참봉네 밭되었다고/우시는 어머님 웨우십
니까/번사람 못살을 나는알아요//작년에 김매든 우리집식구/올봄엔 간도로 가
게됐다고/우시는 어머님 웨우십니까/분에뛰는 울동무 만코만해요// (間島 教根,
「우시는 어머님」, 『신소년』, 1932년 6월호, 9면)

「방울」은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이 중시하는 현실인식조차 부재한다.
「우시는 어머님」은 밭을 빼앗기고 간도로 떠나게 되는 당대의 현실을 담
고 있다. 그러나 박고경은 어머니가 그저 울고 있다고 한 것이 마땅찮다
고 본 듯하다. 같은 면에 실린 박세영의 「풍선」도 계급적 현실인식이나
적대감이 잘 나타나 있지만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압집 영감 배는요 풍선배구요/뒷집영감 배는요 홀태배지요//풍선배는 노라
도 베섬만깨고/홀태배는 일해도 주름살늘쫘//썩썩썩 선동이 부는풍선은/늘다
늘다 못해서 탁터졌지요//압집 영감 저배도 느러만가단/풍선 처럼 될것을 우리
는알쫘// (朴世永, 「風船」, 『신소년』, 1932년 6월호, 8면)

부자인 앞집 영감과 가난한 뒷집 영감을 ‘풍선’과 ‘홀태’에 비유해 계급
적 대립과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두고 “聯想에 採集”을 하여 “作
品에 輪廓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感”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이동
규(李東珪)의 「녀공의 동생」과 한철염(韓哲焰)의 「해님 없는 직공들」, 승응
순(昇應順)의 「잇치지 않는 일」 등 3편의 작품은 “自信해도 좋은 作品
들”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케 일하고 눈꼽만한 싹/언니들 마음은 분하

지 않소”(「너공의 동생」)에서 “小兒病的 細균을 完全히 清算”하였다는 점을, 「해님 없는 직공들」은 “進軍에 對한 明確한 暗示”가 없기는 해도 “健實한 筆致로써 表現함에 成功”하여 “寫實 自體가 뜻깊은 暗示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치지 않는 일」은 “作者의 그 덤비지 않으면서 굽직한 線을 거 내려가는 듯한 筆致”(이상 32면)를 들어 칭찬하였다. 「너공의 동생」은 고된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적게 받는 데 대해 분하지 않느냐고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님 없는 직공들」은 제사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하루종일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 「잊치지 않는 일」은 ‘소품(小品)’으로, 부협위원을 하다가 총독부 과장이 된 K와 아침마다 K를 태워 다니는 인력거꾼의 집을 대비하되 인력거꾼으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의 전망을 그려 보인다. K의 아들 용철이와 인력거꾼의 아들 현경이는 여덟 살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데 싸움이 나게 되었다. 이를 안 K가 인력거꾼에게 현경이를 혼을 내라고 하고, 현경이는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았다. 현경이가 화자인 ‘나’를 찾아와 “부자되는 글을 아르켜 주시요”(19면) 한다. 박고경이 ‘덤비지 않’는다고 한 것은 기계적으로 계급 간 대립을 노출하여 선불리 이념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경이의 향후 전망을 밝게 암시한 것에 대해 ‘굽직한 선’을 그은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럼에도 『신소년』 “六月號는 決코 自慰할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박태양(朴太陽)의 「商品의 價格이란 무엇인가」란 강좌에 대해 학설보다는 “勤勞少年에게는 다른 要求”가 있다고 하였고, 철이(鐵兒)의 「一農卒·赤兒 頭上에 一棒」의 경우 “말만 붓치다가 도라서는 늦김”이라는 점을, 김우철(金友哲)의 「방학날」과 윤철(尹鐵)의 「바다사가의 농촌」은 연재물인데 그 결말을 궁금해하였고, 「독자담화실」은 “너무나 너글하다”고

평가절하하였다.

박고경은 이 평론을 통해 “우리들 독자가 힘써 『신소년』에 ‘欠’과 ‘長’點’를 차저내이며 약진하는 『新少年』에 前哨가 되어야 할 것”을 바라고 있다. 독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요망하며 박고경 자신이 “『新少年』의 大衆의 編輯에로의 一步가 되며 또한 그것에 조고만 助力이 되어지기를 企圖”(이상 33면)한 것이라는 요지다.

이상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밝힌 박고경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급적 현실인식을 뚜렷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과 근로소년의 삶을 담은 ‘레포’의 강한 내용을 요구한다. ‘건설한 필치’나 ‘굽직한 선’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계급적 현실을 제대로 간파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을 짚어 표현하기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 박고경은 ‘대중적 편집’이라 한 것이다.

(2) 동요 작품의 변모 양상

박고경은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인 1928년 초반부터 아동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첫 작품이 동요(동시)였고 그가 주로 활동한 갈래였다. 『조선일보』의 ‘학생문예’ 난을 통해 첫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학생다운 기개가 드러나 있다. “힘업는農夫들에게/노래를지어줄/朝鮮의詩人이되어야할나!”(「나는」)라고 하여 ‘조선의 시인’으로서의 포부를 내보였다. 1928년이면 박고경의 나이 18세 때다. 청년의 기개랄까 포부는 이후 사회운동으로 이어졌고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 등으로 투옥되기까지 하였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일반문학과 마찬가지로 아동문학도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까지는 계급문학이 주도적이었다. 그중에는 적대감과 증오심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문단 사정과 박고경의 계급주의적 입장을 감안할 때 그의 동요(동시)에도 계급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이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고경의 동요(동시)는 그렇지 않다.

한울에달이 구름을버서나/나에게 말하였나이다/바람이 무서워 구름에 숨었
더니/그구름조차 바람을 피합디다'라고// (『달과 나』)

구름이 걷혀 구름 속에 있던 달이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혔거나, 지구의 자전(自轉)으로 달이 보이게 된 자연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달을 행위의 주체로 바꾸어놓았다. 바람이 무서워 구름에 숨었는데 그 구름마저도 바람이 무서워 피하니 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발상의 전환 혹은 낯설게하기 수법은 박고경의 동시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팔랑팔랑 흰눈은/하느님편지/하도먼길 오누라/바람에 닳쳐/가다가다к 찢겨서/
내려온대요// (『편지』)

신춘문에 2등 당선작이다. 눈을 두고 하느님이 보내는 편지라 했다. 눈의 결정(結晶)을 먼 길 오누라 다쳐 갈가리 찢겼다고 표현한 것이다. 윤복진은 이 작품을 두고 “二等이라기에는 不足”³⁶하다고 하였다. 김병호(金炳昊)도 “二等 되기 좀 不足”하다며 “한 개의 偶意를 가진 平凡한 童

36 尹福鎮, 「三新聞의 正月 童謠壇 漫評(三)」, 『조선일보』, 1930.2.5.

謠”³⁷라 하였다. 너무 설명하듯 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밤
엿」에 대해서는 “조흔 童謠이다. 單純하고도 技巧로써 何等에 애쓴 것도
되지”³⁸ 않는다면 높이 평가하였다.

밤엿사려/웨치면/개가짓지요//밤엿한개/썩ㄱ/먹고십다고// (「밤엿」)

쿵당쿵당 절구질/햇님보고 주먹질// (「절구질」)

밤엿을 먹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개에게 가탁한 것이다. 밤엿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과 똑 부러뜨려 먹는 모습까지 군더더기 없이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을 칭찬한 것이다. 「절구질」은 그 절정이다. 절구질하는 절
굿공이의 윗부분에 주목해 본 화자는 햇님을 보고 주먹질한다고 본 것이
다. 절구질이 곧 주먹질이 되는 발상의 참신함이 돋보인다. 박고경의 동
요(동시) 작품은 이처럼 시적 표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동실——동당/동이안에/넘실거리는거품에/박아지노래부른다/물을사랑한다/
그底抗치안흠을이라고/짓는 물우에/박아지노래한다/노래하는그소리에/발맞추
는村婦人// (「村婦人」)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고 가는 ‘촌부인’이 바가지 소리에 발을 맞춘다
고 하였다. 사실은 ‘촌부인’의 발걸음에 따라 물동이의 물이 일렁거린 것
이다. 물이 넘치지 말라고 띄워놓은 바가지 또한 일렁거리는 물에 따라

37 金炳昊, 「新春當選歌謠 漫評—三社分 比較合評(二)」, 『조선일보』, 1930.1.14.

38 尹福鎭, 「三新聞의 正月 童謠壇 漫評(二)」, 『조선일보』, 1930.2.3.

물동이에 부딪칠 뿐이다. 바가지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 것을 두고 ‘저 항치 안’는 ‘물을 사랑한다’고 하였다. 물을 걷는 촌부인의 일상을 전복적(顛覆的) 사고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해 본 것이다. 표현기법에 대한 고심은 작문(수필)에서도 확인된다.

실실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종종걸음으로 집에 와 닳다. 그리든 비는 아니다. 버들넙 식기 좃코 냇물에 고운 동무가 되어 줄 비다. 골창이에는 아모 기척도 업시 좀더 물이 썩슬 썩이며 길은 자근자근 줄었슬 썩이다. (후략) (『해사비』, 67면)

버들잎을 씻을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래서 흙탕물이 되지 않았으니 냇물의 동무가 되어 줄 비라 하였고, 개골창에는 별 기척이 없이 물이 조금 늘었슬 뿐이라는 말이다. 비가 내리니 종종걸음을 걷게 되고 그래서 빨리 집에 오게 된 것을 길이 자근자근 줄었다고 한 것이다. 박고경이 표현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고선자(考選者)인 최독견(崔獨鵑)은 “고흔 글이외다. 그썩”(『해사비』, 68면)이라며 평가절하하였다.

(전략) 또 한가지는 무를 거스로 少年文壇 顧問 先生님에게 말입니다. 우리 文壇에도 썩가 굿은 니야기 피가 툇々 튀는 말을 쓰기는 쓰야겠지요. 만은 우리에 문저 할 바는 우리 주위에 사정이라든가 사물을 잘 스킷취 함으로 그 圓滿을 다할 수 잇지 안을까요. 先生님 주지님은 말이라고 욱 마십시요. 세 번을 거듭혀 描寫에 너무 흘렀다고 툇 먹은 아해에 어리석은 수작이외다만은 내사는 그대도 一理가 잇서 말할 바니 잘 指導하여 주소서. (南浦 朴春極)³⁹ (밑줄 필자)

39 『交友室』, 『소년조선』 제10호, 1928년 10월호, 73면

묘사에 치중했다고 최독견으로부터 세 번을 지적당했다는 말이다. 박고경은 최독견이 ‘새가 굶은 니야기 피가 툭툭 튀는 말을 쓰’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정이나 사물을 잘 스케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되묻는다. 이후에도 “당신은 技巧를 濫用치 안도록 注意하는 것이 조홀 듯합니다. 技巧萬能에 빠져서는 큰일”(「바다사에서」에 대한 최독견의 ‘선평’, 122면)이라거나, “다만 君뿐이 아니라 어릴 째는 대개 그러치마는 文章만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表現하려는 것까지 이저버리는 美文萬能의 廢”(「소년문단」봄이로소이다, 75면)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면, 박고경도 쉽사리 자기 생각을 거들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송아(雪松兒=鄭寅燮)는 1932년경의 소년문예운동을 세 부류로 나눈 적이 있다. 첫째는 “씨베트 로시아를 상상하고 푸로레타리아만을 공연한 헛소리로 주창한 作家 一派”, 둘째는 “自然과 춤추며 김분하소 슉흔하소 본 대로 늦긴 대로 自由롭게 아름답게 고읍게 어엽부게 끄리김 없이 그려 내어 운전해 나온 一派”, 셋째는 “직업소년 실업소년 工場에서 農村에서 함마 쥐고 광이 메고 용감이 일하는 근노 少年 분함에서 억울함에서 용소슴쳐 나오는 대로 現實xx 大衆의 實感을 그대로 그리어 一九三二年 朝鮮少年文藝線上에서 일해 나온 그 一派”⁴⁰가 그것이다. 박고경을 둘째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동요(동시)가 기교에 치중하고 계급적 현실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 그 근거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박고경의 동요(동시)가 모두 묘사와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0 雪松兒, 「一九三二年的 朝鮮少年文藝運動은 엇더하였나」, 『少年世界』, 1932년 12월호, 3면.

한아버지 눈물은 그리운눈물/젊은씨가 그리워 우시는눈물/어머니의 눈물은
고달픈눈물/아버지가 썬난뒤 생기신눈물/울음우는 동생은 학교애들께/모자엮
는 애라고 놀리워눈물/가지가지 서름을 업시한다고/니빨을 악물고 우는내눈
물// (「눈물」)

아버지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동생은 모자를
쓰지 못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나는 여러 가지 설움을 견디느라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머니의 눈물
이나 동생과 나의 눈물은 모두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루 종일
공장일을 해야 하는 공장 아씨의 한숨을 노래한 민요 「공장굴둑」과 우리
누나 단잠을 깨우고는 데려다 하루종일 일을 시키는 동요 「공장굴둑」도
모두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종일 피어나는 검은연기는/공장아씨 한숨이 몽기몽기여/님보라고 올리는
표적이라오// (중략) 옷дук선 공장굴둑 모진듯해도/저녁이면님뵈라고괴덕올리쥬/
별을보면 가슴이 썰린다나오// (「民謠」工場굴둑)

工場굴둑 키다리 멀정하지오/일흔새벽 썩썩썩 소리질러서/우리누나 단잠을
깨여쳐노코/하로종일 더러다 일을시켜요//工場굴둑 키다리 용키도하지/기다리
고 기다려 해가질때면/소리소리 반가운 소리질러서/우리누나 돌아올 消息 전해
요// (「工場굴둑」)

그러나 적대감이나 증오감의 표현은 없다.

(전략)

옵바옵바 날보고 욱하지말아/선물보낸 각씨를 팽게챗다고//압집오쌘상날보
고요보라는데/입술빨간일본각샌난안가질테요// (4, 5연) (「선물로 바든 입술 빨
간 각씨」)

일본에 간 오빠가 첫 설이라고 일본 각씨 인형을 선물로 보냈지만 버
렸다. 그 까닭은 ‘압집 오쌘상’ 날보고 ‘요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요보
(ヨボ)’는 ‘이봐’나 ‘여보세요’란 우리말을 일본어로 표기한 것으로 사람을
부르는 말이지만, 일본인이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의 대명사가 되었다.⁴¹
박고경의 생각이 시적화자인 여동생의 입을 빌려 표현된 것이다.

현실인식이든 민족의식이든 적대감이나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
지 않는다. 면장집에 머리 깎는 기계를 빌리러 갔다가 빌리기는커녕 욱
만 얻어먹은 아이가 가위로 깎은 ‘쓰더머리’에도 씩씩하게 병정놀이를
하는 모습의 「쓰더머리」,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간 나를
견학 온 친구들이 외면하고 비웃는 모습의 「서른 썸」도 마찬가지다.

박고경은 『별나라』와 『신소년』에도 여러 편의 동요(동시)를 발표하였
다. 창간 때부터 계급주의 아동문학을 표방한 『별나라』와, 1930년경에
들어 『별나라』와 보조를 같이한 『신소년』에 수록된 작품들에는 계급의
식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서리와 풀」, 「다시 살난 동생의 깃새」, 「옵바 보는 책」, 「허잡이만 밋
다간」, 「배」, 「해바래기」, 「주일날—특히 평양 동무들에게」, 「축구가」, 「구
름편지」(이상 『별나라』)와, 「개똥불 만세」, 「형 안령히」, 「폭풍·폭풍·저 폭

41 ‘ヨボ’とは, ‘オイヘ’ ‘モシベ’くらいに, 人を呼び掛ける 語であるが, 老老と 嵌めた 朝鮮人の 代名詞
になって 居る. 竿頭一步を 進めて, 今や 老老國と 通用する 時代が 來た. (薄田 斬雲, 『ヨボ記』, 京
城: 日韓書房, 1908, 3면)

풍], 「훗날 만나자」, 「개아미야 나와 악수해」(이상 『신소년』) 등을 확인하였다.

신문지를 오려 만든 동생의 ‘깃발’이 비에 젖어 다시 밥풀로 요리조리 붙여 “대문칸에 빗나게 되살은 깃째”(「다시 살난 동생의 깃째」, 69면)가 된 것을 노래한 것이 「다시 살난 동생의 깃째」다. ‘깃발’이 갖는 상징이나 선전의 암시적 의미만 나타나 있다. 「옴바 보는 책」에도 “쭉정쌀간 조-꼬만 책” 때문에 금융조합 사환 일자리마저 떼었다고 해, 사상 서적이거나 당국의 저촉을 받을 만한 책임을 암시하는 정도다.

(전략) 그놈의/손아귀/벗단채간다//허잡이만/밋다가/큰코닷칠라// (「허잡이만 밋다간」, 9면)

참새가 낱알을 까먹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세워 참새를 쫓는다. 그런데 그 허수아비만 믿고 있으면 큰코다친다는 말이다. 벗단째 흠쳐 가는 ‘그놈’이 있기 때문이다. 벼 도적을 ‘그놈’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수록 매체와 시기를 종합해 볼 때 소작제도의 모순 때문에 구조적으로 농민이 수탈당하는 문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루종일 햇님을 못본다는”(「해바래기」, 36면) 우리 언니 공장에 해바래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해바래기」와, “엇는자는 썰을차고 술이나먹고/우리들은 썰을차고 몽치나지고”(「蹴球歌」, 9면)에서 축구를 한 후 친해져 동무가 되는 「축구가」 등도 내놓고 적대감이나 계급의식을 도드라지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차 변모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장전/뱃통이/엇저며/저리클-고//바람을/잡아연/복어배/여전 해-요//고
배를/특차면/특차면/무에 나올가//쫑!/아-니/우리들x/부락 나 온 다// (木古京,
『배』, 『별나라』 통권50호, 1931년 5월호, 44면)

공장주인 배가 바람을 불어 넣은 복어 배처럼 크다. 그 배를 차면 똥이 아니라 ‘우리들x’이 나온다고 하였다. 복자 ‘x’은 우리의 귀중한 것, 노력의 결과물을 가리킬 것이다. 공장주인과 우리를 대비시키고, ‘뱃통이’, ‘쫑’ 등의 비속어를 통한 증오심도 내보이고 있다.

공전한푼 못밧고 노는공일날/再중소리 날째야 잠을췌드니/잠은실낱 자보니
편안하것만/오늘먹을 밥값은 누가내주나//회당에를 가면은 노라리목사/충성스
리 주인을 섬기란연설/뺨을뺨여 오늘도 하고잇겠지/삭전은 깍가내고 충성은먹
니// (3연 생략) (朴古京, 「主日날-特히 平壤 동무들에게」, 『별나라』 통권58호,
1932년 4월호, 48면)

‘공전한푼 못밧고 노는 공일날’ 잠은 실낱 자서 좋지만 밥값 걱정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선명하다. 교회당 목사는 이런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만 섬기라고 한다. 건달처럼 건들건들 놀며 세월만 허비하는 사람을 속되게 일컬어 ‘노라리’라고 하니, 목사가 신앙의 매개자가 아니라 비하의 대상이다. 일제강점기 계급주의 이데올로기가 견지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신소년』에 실린 작품들도 대동소이하다. 「개똥불 만세」는 석유가 없어 캄캄한 야학 교실에 반딧불이가 가서 불을 밝히자는 내용이다. 형과 헤어지기 싫지만 ‘우리의 일’을 위해 형을 떠나보내는 「형 안령히」에도

어려운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 「훗날 만나자」에서는 ‘겁쟁이 피쟁이 그 리구 꼬치질쟁이 고놈’하고 놀지 말자고 ‘너와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너’도 같은 ‘낫분 애’이니 ‘훗날 만나자’는 내용이다. 아마도 소년 운동을 하는 ‘피오네르’들끼리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비유와 암시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개아미야 나와 악수해」다.

(전략) 개아미야/너는 펍두 여위엿구나/버러드린 곡식을랑 뉘게 x젓나/허리
춤이 잘눅해서 일하는 꼴이/우리 아버지와 한가지구나// (하략) (「개아미야 나
와 악수해」, 2면)

허리춤이 잘룩하고 여윈 모습이 개미와 우리 아버지가 같은 처지다. 열심히 일을 해 ‘버러드린 곡식을랑 뉘게x젓나’고 묻는다. 복자(伏字)는 ‘뺏겼나’(뺏꼈나)이다. 벌어들인 곡식을 뺏겨 먹지 못한 우리 아버지나 개미는 허리가 잘룩할 정도로 여윈 것이다. 가난의 원인이 수탈과 착취에 있다는 인식은 소년시 「폭풍·폭풍·저 폭풍」에도 나타난다. “바람이 제창 미쳐 가지고 막 지랄을 하고 잇”는 바다에 나간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이 화자다. 울고 있는 어머니를 원망하기까지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가난 때문이다.

(전략) 어머니! 우리는 웨 보내슬까요/그깃 주인 예대(豫貸) 먹은것 내란다고
요/죽일테면 죽이라고 내백이지 앓고/예대먹고 굶으나 앓먹고 굶으나/굶기야
매일 반이지요/눈꼽재기만한 예대/빚두집도 못물고나서 밋창이 들어나는 곁
예대금이/그래 이 바람 심한철에/생사람을 바다에 띄워보낸단말입니까/어머니!

우리는 좀더 양탈을 써 봤으면요/죽어도 죽어도 아버지는 못놓는다고/ (하락)
 (『暴風·暴風·저 暴風』, 8~9면)

‘예대(豫貸)’는 ‘가불(假拂)’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썹재기만한 예대’라 하였으므로 아주 적은 가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불을 하나 안 하나 ‘굶기야 매일반’이었던 것이다. ‘예대’를 갚기 위해 아버지는 몹시 바람이 부는 바다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30년경 『신소년』과 『별나라』에는 카프(KAPF)의 방향전환에 발맞추어 노골적인 계급의식을 드러낸 작품이 많았다. 이런 작품들을 가려 뽑아 카프의 서기장을 맡았던 권환(權煥)과 윤기정(尹基鼎)의 서문을 엮어 발간한 동요집이 『불별』(중앙인서관, 1931.3)이다. 무작위로 몇 작품을 골라 보았다.

“소작료 만히바다 새쌀밥뭇먹고/코에서 피터지고 물똥만싸게.”(김병호, 「가을바람」, 2면), “너의집도 가난하고/나의집도 가난하고/ (중략) 싸울데가 따로있다/때릴놈이 따로있다/ (하락)”(양우정, 「따로 있다」, 3면), “닥치면 목을벤다 미운놈은 모조리”(이구월, 「계떼」, 4면), “놀고서 먹는놈 미운놈이다/ 침주자! 침주자! 침주자!”(이향파, 「별꽃」, 5면), “개고리를 한마리 찢너보고는/미운놈의 목아지를 생각하얏다.”(손풍산, 「낫」, 7면), “미운놈 아들놈이 조흔웃입고/지개진 나를보고 욕하고가네/ (중략) 옛다그놈 가다가 소똥을 밟아/밧그러져 개똥에 코나다쳐라//”(신고송, 「우는꼴 보기 싫혀」, 8면), “모심으는 아버지 피를빠는 거머리/거머리 배를 찢너라//”(손풍산, 「거머리」, 17면), “하늘에 불칼이 번적인다/ (중략) 일하는 농부는 때리지말고/노는놈 상투나 배여가거라//”(손재봉, 「불칼」, 49면) 등에서 보듯이, 표현이 직접적이고 계급적 적대감과 증오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1930년대에 접어

들면서 카프의 방향전환론을 따라 창작된 계급주의 동요의 모습이다. 『불벌』에 수록되었던 작품들과 박고경의 작품을 비교하면 표현은 순화되고 계급의식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고경의 동요는 표현 기교에 치중하던 초기와 달리 1930년대에 들어서면 계급적 현실인식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자신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에 참여했을 만큼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 동화 및 소년소설과 교훈

박고경은 동요(동시)를 쓰다가, 1934년부터는 동화(소년소설)를 쓰는 데 주력했다. 그중 「게산이」는 『조선중앙일보』 신춘현상 문예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다.

동요(동시)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나 계급적 현실이 완곡하나마 드러난 동화는 「거짓말이 생긴 곳」이다. 영자네 집에 탄실이네가 세 들어 산다. 큰오빠는 뜯벌이를 하는데 집에 와야 집세와 월사금이 해결된다. “하로는 증절모 쓴 사람이 탄실네 집에 와서 그의 오빠를 다리고 갔”(「거짓말이 생긴 곳(1)」, 1934.9.30)는데 이를 모르는 탄실이는 오빠가 돌아오면 선물을 사 올 것이라고 자랑하였으나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 영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오빠는 돈 못 버는 류치장에서 손꼽아 기다리던 탄실이에게 온 것”(「거짓말이 생긴 곳(2)」, 1934.10.2)이었다. 그런데 오빠는 탄실이가 알고 있는 오빠가 아니었다. 그저 탄실이네 가정 살림만 감당하는 오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사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남포(南浦), 황주(黃州) 등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거점으로 모종의 일을 하는

‘사상범’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박고경의 개인사가 녹아 있다. 그런데 박고경은 부자인 영자와 가난한 탄실이를 대놓고 계급적인 대립이나 증오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주인공이 처한 사정을 압축적인 언어로 드러내는 솜씨는 박고경의 표현 능력이 발휘된 것이다. “영자는 돈 잘 버는 아버지를 가졌고 탄실이는 튼튼한 오빠를 가졌습니다.”라고 했다. 돈 잘 버는 아버지와 튼튼한 오빠로 각각 장점을 내세웠다. ‘튼튼한 오빠’는 몸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정신 또한 그러함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시에 오빠는 돈을 잘 못 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결국 튼튼한 정신을 가졌지만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오빠로 인해 탄실이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고경은 당대 지식인의 현실 인식을 배면에 깔고 있으면서도 노골적인 대립이나 적대감은 감춘 노련미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이 생긴 곳」은 거짓말 때문에 탄실이와 영자의 사이가 벌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줄거리가 전부다. 따라서 닫힌 결말로 이야기가 완결되었다. 그런데 작가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달아놓았다.

탄실이는 오빠를 원망하지 안었습니다.

영자는 탄실이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지 안했습니다.

탄실이는 오빠에 간 곳을 잘 알았으면 그런 실수가 업섯겠지요.

영자는 정말 잇슬 수 잇는 일인가 잘 생각하여 보았어야 될 것이었지요.

그자집 여픈 지나가는 사람들은 탄실이와 영자에 함창소리를 들을 수 잇섯 습니다. (「거짓말이 생긴 곳(3)」, 1934.10.4) (밑줄 필자)

이 부분은 독자에게 맡겨두어도 되었을 것이다. 작중인물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독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의 지나친 개입은 독자의 독서를 방해할 뿐이다. 그런데 박고경은 이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editorial comments)을 애용한다. 다른 작품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러한 논평을 배치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와 송아지」도 내용이나 논평에서 교훈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개는 할일 업시 풀밭 위로 뛰어다라났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일흔 떡을 속아 빼앗긴 듯이 생각코 남을 속여 보려든 개는 저무는 햇빛 비취이는 풀바테서 그림자조차 살어지고 말었습니다. (「개와 송아지(三)」, 1934.7.29) (밀줄 필자)

벉속 구조가 다른 것도 모르고 송아지의 반추(反芻) 행위를 부러워하며 먹을 것을 맡겼다가 되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개가 송아지를 속여 보려다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평 역시 군더더기다. 한편 「개와 송아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계급주의 아동문학이 강조했던 과학적 세계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야기의 추동력은 가난에서 비롯된다. 가난의 극복은 과학적인 세계 인식이 필요하다. 개는 어리석게도 “신령(神靈)이 나에게만 배워 준 비전(秘傳)”이란 비과학적 태도를 보이며 송아지가 먹은 것을 빼앗아 보려고 한다. 작가는 이러한 비과학적 태도를 조롱하고자 한 것이다. “앞을 똑바로 내다보는 그리고 가장 정당한 行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 科學에 對한 慾望”(「大衆的 編輯의 길로」, 30면)을 동화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산이」는 안테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와 모티프가 닮아 있다. 열두 마리 병아리가 부화하였는데 그중 두 마리는 유별나게 컸다. 어미

닭은 “모든 병아리에 말형이 되고 또 닭뿐이 아니고 온 동물 중에 뛰어 나는 장수가 될 것”(『계산이』, 1936.1.1)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점점 자라자 가정의 평화를 깨는 괴물처럼 “자기를 낳어준 엄지닭도 이제는 눈 앞에 성가신 물건으로 취급하는 눈치”(『계산이(二)』, 1936.1.3)를 보였다. 세월이 흘러 알을 까야 하나 부화를 할 줄 모르는 ‘계산이’와 ‘계산이’의 악행을 미워한 병아리들이 ‘계산이’의 알은 까주지 말자고 한 결의로 “권력 좋은 계산이의 림종은 쓸쓸하기 짝이 없”(『계산이(二)』, 1936.1.3)었다는 이야기다. 작가는 권력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칠판 엮는 학교」에서도 교훈을 담은 논평은 이어진다.

“영배야” 나는 무게 잇게 일흠을 불렀읍니다. “우물 안에 개고리는 너처럼 혼자 우물 안에서 못나고 잘난 체 모르고도 아는 체 우쭐거린단다. 네가 너보다 공부 잘하는 진옥이를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물 안에 개고리도 저보다 나은 개고리는 우물 안에 들어오는 걸 실허한단다. 너는 우리 집 개고리 영배란다.

이제는 영배는 트집도 못 부리고 볼 편이 발기우리 타고르고 잇엇읍니다. 타오르면 오늘 지나 래일은 정말 훌륭한 영배를 보게 될 것처럼 듯다 오르는 해를 바라다보는 듯한 기쁨을 갖일 수 잇엇읍니다. (『칠판 엮는 학교』, 6면과 11면)

친구 진옥이가 오빠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자 진옥이를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오빠인 ‘나’가 하는 말이자 논평이다. 「칠판 엮는 학교」의 연작동화인 「새옷」도 마찬가지다.

나는 영배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싶습니다. 고훈 옷을 입히고 싶습니다. 영배가 새 옷을 입고 책보 끼고 학교에 단이는 몸맵시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영배에게 고훈 옷이나 입으면 사람이 잘나지는 줄 아는 맘보는 길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옥이와 복녀— 그리고 몇々 영배에 동무들이 파란 옷 입은 영배를 놀려 준 것 나도 그때 그 축에 끼여 있어드리면 활작 더 떠들어주었겠습니다. (「칠판 엮는 학교」, 21면)

이야기의 끝에 있는 논평이다. 고운 옷만 입으면 잘난 사람이 되는 줄 아는 마음보는 길러주고 싶지 않다는 교훈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군더더기다. 새 저고리를 입고 싶은 어린 영배의 마음, 해 주지 못하는 엄마와 이모의 현실만으로도 잘 짜인 한 편의 동화가 되기에 충분하다.

「햇불」은 대놓고 교훈적 논평을 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다. 정월 대보름날 날씨가 흐려 달마중이 시원찮게 된 데 대해 ‘빈 주머니 영감님’, ‘수도총대 영감님’ 그리고 ‘초학 훈장 영감님’은 각자 그 까닭을 나름대로 풀이한다. 그러나 화자는 “정월도 대보름 이날 날이 흐리기는 달님께서 이 말을 듣기 전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 저는 모릅니다.”(「햇불(下)」, 1936.3.7)라고 하였다. 영감님들이 흐린 날씨를 두고 풀이한 것인지, 달님이 영감님들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 날이 흐린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앞산에서 달마중하는 어린이들은 늙은이들에 이 모든 걱정을 꺾등에도 실지 않고 옥 옥 소리치며 햇불을 두르고 있드립니다. (「햇불(下)」, 1936.3.7)

정월 대보름날 날이 흐려 달맛이가 시원찮다. 영감님들은 달맛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영감님들의 걱정과 달리 쥐불놀이에 몰두하고 있다.

아이들과 영감님들뿐만 아니라 달님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햇불」은 우화(寓話)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달님의 집은 어디 바로 될까요? 뛰어가면 곧 갈 수 있을까요?”라며 달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데서 판타지적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 영감님들의 풀이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햇불을 휘두르며 즐겁게 쥐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인 것이다. 대보름날 아이들의 쥐불놀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판타지적 수법으로 사실을 다루는 솜씨가 빼어나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작품이라 하겠다.

동화와 소년소설은 평론에서 한 말이나 동요(동시)에서 보여준 계급적 현실인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박고경이 갖고 있던 표현과 정확환 문장구사에 대한 신념에다,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으로 투옥됐던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화는 모두 출옥 이후에 창작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맺음말

박고경은 동요(동시), 동화(소년소설), 평론, 작문 등을 합쳐 다수의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아동문학가들과 견주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문제는 그의 여러 필명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박고경(朴古京, 朴苦京)’ 외에 ‘목고경(木古京)’, ‘박순석(박순석, 박순석, 朴順錫, 朴珣石)’, ‘박춘극(朴春極)’, ‘각시탈’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다.

박고경은 평안남도 진남포(鎭南浦)와 평양(平壤)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 운동을 하였다.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에 참여해 투옥되기도 하였다. 계급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보에 걸맞게, 박고경의 문학관은 기본적으로 계급적 현실인식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의 평론 「대중적 편집의 길로」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박고경의 작품에 드러난 양상은 계급주의 일변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표현기법 등 문학의 형식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고경의 동요(동시) 작품은 71편가량이 확인된다. 초기의 표현 위주에서 점차 계급적 현실인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모된다. 자신의 현실인식과 1930년대 제2차 방향전환론에 따른 문단 풍토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대감과 증오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던 당대 계급주의 아동문학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형식과 내용이 조화된 문학을 추구한 박고경의 노력이 드러난 부분이라 하겠다.

동화 작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6편의 동화 중에 계급적 현실인식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난 것은 「저짓말이 생긴 곳」이 유일하다. 박고경의 문학관이 계급주의로만 치달지 않는다는 점과,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뒤라는 시기와 관련된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숨씨나 정돈된 문장이 돋보인다. 논평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마무리는 박고경이 선호한 그의 동화에 나타난 특징인데, 그다지 성공한 수법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에서 박고경은 적지 않은 작품량과 작품의 수준으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작가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면서도 문학적 형식을 외면하지 않은 균형잡힌 시각 때문이다. 그 결과 작품의 성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소년세계, 소년조선, 동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2. 논문

김나라, 「1929년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16.7, 1~68면.

류덕제,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의 필명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9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81~144면.

문한동, 「조봉암 연구-정치활동과 노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8, 1~176면.

박순섭, 「1920~30년대 김찬의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협동전선」,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6, 1~45면.

유병석, 「한국문사의 이명 색인」, 『강원대학 연구논문집』 제8집, 1974, 175~184면.

유병석, 「한국문사의 이명 연구(전8회)」, 『문학사상』, 1974년 2월호~9월호.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 『황해문화』 제23호, 새얼문화재단, 1996.6, 82~115면. (원문은 『희망』 1957년 2, 3, 5월호에 수록되었음)

3. 단행본

강만길 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운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14.

김기주 편, 『조선신동요선집』, 평양:동광서점, 1932.

류덕제 편, 『한국 아동문학 비평사 자료집(1~6)』, 보고사, 2019.

류덕제,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연구』, 청동거울, 2017.

박경수,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맥락: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신명균 편, 『(푸로레타리아동요집) 불벌』, 중앙인서관, 1931.

이재철, 『한국 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하동호, 『한국근대문학의 서지연구』, 깊은샘, 1981.

薄田斬雲 『ヨボ記』, 京城: 日韓書房, 1908.

4. 기타

「제선생(諸 先生)의 아호(雅號)」, 『동화』, 1936년 12월호, 26면.

Abstract

A Study on Park Go-gyeong as a Children's Writer

Ryu, Duck-jee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ark Go-gyeong published a lot of pieces of children's literature including children's songs(children's poems), children's stories(novles for boys), reviews and compositions. This is not a small amount in comparison to children's literature produced by other authors of the time. The challenge is to identify the various pen names under which he has composed these pieces. In addition to 'Park Go-gyeong(朴古京, 朴苦京)', he wrote as 'Mok Go-gyeong(木古京)', 'Park Sun-seok (朴順錫, 朴珣石)', 'Park Chun-geuk(朴春極)', or 'Gaksital(각시탈)'.

Park Go-gyeong was a social activist active around Jinnampo(鎭南浦) of Pyeongannamdo and the general area of Pyeongyang(平壤). He has a record of having been imprisoned for taking part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Communist Party in Korea. In line with his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 based on class theory, Park Go-gyeong's literature overall reflects clear class consciousness, which is especially well manifested in his review, "The Way to Editing for the Public(「대중적 편집의 길로」)".

At the same time, Park Go-gyeong's works keep a certain distance from being

completely immersed in class theory, as he pays much attention to the formal aspects of literature such as literary devices.

Children's songs(children's poems) by Park Go-gyeong are identified to be around 71 pieces. Initially it stresses literary expression, but gradually reinforces class-consciousness. This appears to result from not only his own perception of reality, but also the second redirection theory in literary trend of the 1930s. Nonetheless his works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contemporary class-theory based children's literature, which expressed unfiltered antagonism and contempt.

Something similar can be said for his writings of children's literature. Out of his 6 pieces, only "Where Lies were Formed(「커짓말이 생긴 곳」)" shows even partial class-consciousness. This would relate to the fact that his literary worldview does not comprise of class theory solely, and that this was immediately following his life in prison.

As a prolific children's literature auth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Go-gyeong is a writer who ought not be overlooked. How he attempts to balance himself between literary form and the awareness for Japanese colonial regime is remarkable. Thus he succeeded in maintaining the quality of his pieces

- Key words : Park Go-gyeong, class theory, perception of reality, literary form, redirection theory, children's song, children's story
- 논문접수일: 2019. 11. 15.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